

특허분쟁지도 및 특허맵 작성 결과발표회 성료

국제특허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가 가득



○ 리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2006 특허분쟁지도 및 특허맵 작성 결과발표회」를 개최하였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우리회가 주관한 이번 발표회는 올 한 해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미국 및 일본의 최근 특허분쟁 현황을 심층 분석한 「국제특허분쟁지도」와 특허분쟁이 치열한 10대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동향을 분석한 「분쟁대비 특허맵」이 공개되었다.

올해 작성된 미국 특허분쟁지도에서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특허소송 전담 고등법원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에 제기된 400여 건의 모든 특허소송을 심층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에서의 최근 특허소송 판결 경향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일본 특허분쟁지도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일본 내 특허소송 사건을 심층분석하여 일본의 특허분쟁 현황 및 특성을 기술별·주요기업별로 정리하였다. 또한, 「분쟁대비 특허맵」에서는 차량용 블랙박스, 텔레매틱스 단말기, 나노 의약품 등 분쟁이 예상되는 10개 기술분야에 대해 주요 선진국에서의 특허동향

및 특허분쟁 현황, 그리고 특허분쟁을 대비한 기술개발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특허청과 우리회는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24개 기술분야에 대한 최신 기술분야 특허분석 보고서를 발간해 기업 등에 제공해 왔고, 지난해부터는 우리 기업들이 특허분쟁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국제특허분쟁지도」와 「분쟁대비 특허맵」을 작성·보급하고 있다.

이번 발표회 참가자들에게는 미국·일본의 특허분쟁지도와 특허맵, 그리고 우리에게 생소한 특허분쟁 전문용어를 풀이한 「특허분쟁 용어사전」을 무료로 제공하였으며, 이번 사업결과물은 특허맵 홈페이지(www.patentmap.or.kr)를 통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전상우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성장하면서 국제특허분쟁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실제 피해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발표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특허분쟁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허분쟁지도

미국 및 일본 특허분쟁지도

분쟁대비 특허맵

1. 차량용 블랙박스
 2. DRM
 3. 텔레매틱스 단말기
 4. 전계 방출 디스플레이
 5. AMOLED LTPS 기술
 6. 반도체 평탄화 기술
 7. 서방형 약물 전달시스템
 8. 나노 의약품 개발기술
 9.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10. 항비만 기능성 식품소재 및 제품
-

